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치과 진료 경향

The trend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dental treatment
in the last 10 years



신서희 주임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지원부

- Key Points**
- ☑ 최근 10년간 치과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단계적으로 시행
 - ☑ 보장성 확대에 따라 최근 10년간 치과 진료비는 증가 추세
 - ☑ 전 국민 청구명세서 자료를 기반으로 국내의 건강보험 치과 진료 경향을 살펴봄
- Key Words**
- 치과 진료, 치석제거, 치과 임플란트, 진료 경향
dental treatment, scaling, dental implant, trend of treatment

1. 들어가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년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치과 병·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2019년 4조 8,519억 원으로 2010년 1조 3,862억 원 대비 10년 동안 250% 증가하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0). 이는 2009년 이후 치과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치과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2009~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및 2014~2018년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치과 분야에서 치아 홈메우기, 치석제거,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등 건강보험 보장성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9; 2015).

소아·청소년의 충치예방을 위해 2009년 아동에 대한 치아 홈메우기가 건강보험 급여에 적용되었으며, 노인의 치아건강 증진 및 치과 진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2013년 만 20세 이상(현재 만 19세 이상) 연 1회 건강보험으로 치석제거를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2019년에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충치 부위를 제거한 후 충전재료를 채우고 광중합 하는 광중합 복합레진 충전이 급여화 되었다(표 1).

(표 1) 2009년 이후 치과 분야 주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내용

구분	적용연월	주요 내용
치아 홈메우기 (치면열구전색술)	2009년 12월	만 6세~14세 치아 홈메우기 건강보험 급여화 (제1대구치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
	2010년 12월	만 6세~14세 치아 홈메우기 건강보험 급여기준 확대 (제1대구치 교합면이 치아우식증 이환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
	2012년 10월	치아 홈메우기 건강보험 급여 연령 및 급여기준 확대 - 대상연령: 만 6세~14세 → 만 14세 이하 - 급여기준: 제1대구치 → 제1대구치, 제2대구치
	2013년 5월	치아 홈메우기 건강보험 급여 연령 확대(만 14세 이하→만 18세 이하)
	2017년 10월	치아 홈메우기 본인부담금 10%로 인하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2012년 7월	만 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건강보험 급여화
	2013년 7월	만 75세 이상 부분틀니 건강보험 급여화
	2014년 7월	만 7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2015년 7월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연령 확대(만 75세 이상→만 70세 이상) 금속성 완전틀니 건강보험 급여화
	2016년 7월	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연령 확대(만 70세 이상→만 65세 이상)
	2017년 11월	틀니 본인부담금 인하(50% → 30%)
	2018년 7월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50% → 30%)
치석제거	2013년 7월	만 20세 이상 치석제거 연 1회(7~6월) 건강보험 급여 적용
	2018년 1월	만 19세 이상 치석제거 연 1회(1~12월) 건강보험 급여 적용
광중합형 복합레진	2019년 1월	만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건강보험 급여 적용

이 글에서는 치과 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이후 10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자료를 기반으로 최근 10년간의 건강보험 치과 진료인원, 진료비 변화 등의 진료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분석 자료 및 방법

분석 자료는 2010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요양급여비용 초과 명세서 청구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 관점으로는 연도별, 환자 연령대별, 상병별, 주요 보장성 강화 항목을, 분석 값으로는 진료인원, 진료비, 내원일수를 산출하였다(표 2).

(표 2) 분석 자료 및 방법 정의

분석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석 자료: 2010년 1월 ~ 2020년 6월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 진료 기간: 요양개시일자 기준 2010.1.1. ~ 2019.12.31. • 보험자 유형: 건강보험 • 명세서 서식: 치과 입원, 치과 외래
분석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도별 • 연령대별 • 진료상병별 • 주요 보장성 강화 항목별
분석 값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인원 • 진료비 • 내원일수

3. 분석 결과

가. 연도별 건강보험 치과 진료 현황

최근 10년간 치과 진료를 받은 진료인원과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치과 진료인원은 2010년 164만 1,000명에서 2019년 238만 3,000명으로 10년 동안 45.2% 증가하였고, 치과 진료비 규모는 2010년 1조 4,632억 원에서 2019년 4조 9,998억 원으로 10년 동안 241.7% 증가하였다.¹⁾ 환자 1인당 진료비는 2010년 8만 9,178원에서 2019년 20만 9,799원으로 135.3% 증가하였고, 1인당 내원일수는 2010년 3.44일에서 2019년 3.36일로 큰 변화가 없었다(표 3).

1) 치과 병·의원 외의 요양기관 중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등)에서 청구한 치과 명세서 진료비가 포함된 값으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진료비 통계지표의 치과 병·의원 진료비와 차이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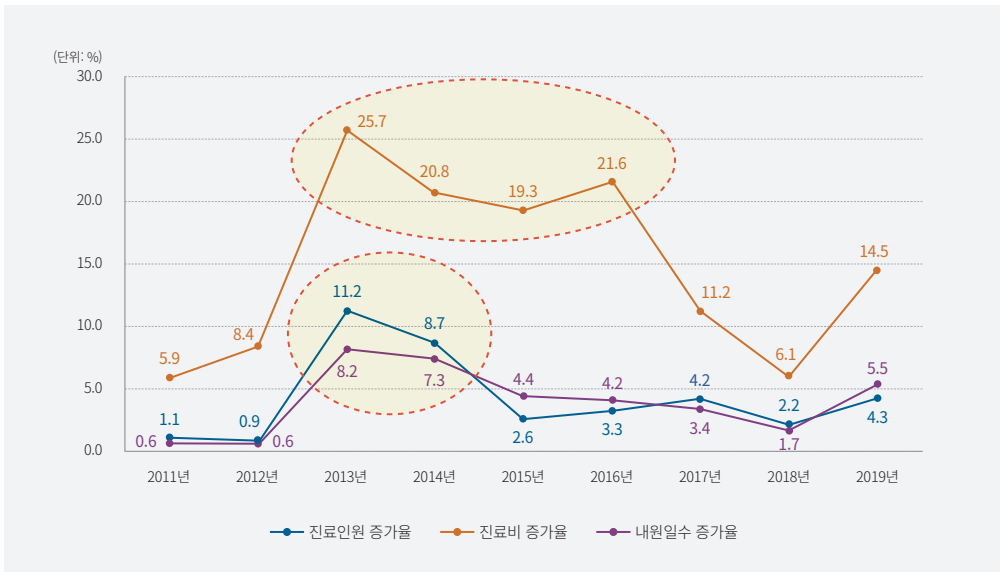
(표 3) 최근 10년간 치과 진료 현황

(단위: 천명, 억원, 천일, 원, 일)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진료인원	1,641	1,659	1,674	1,862	2,023	2,076	2,144	2,235	2,284	2,383
진료비	14,632	15,500	16,806	21,132	25,522	30,457	37,026	41,181	43,673	49,998
내원일수	56,411	56,765	57,131	61,823	66,365	69,266	72,152	74,619	75,894	80,035
1인당 진료비	89,178	93,413	100,402	113,508	126,131	146,711	172,694	184,272	191,218	209,799
1인당 내원일수	3.4	3.4	3.4	3.3	3.3	3.3	3.4	3.3	3.3	3.4

자료: 2010년 1월 ~ 2020년 6월 요양급여비용 치과 명세서 청구자료

연도별 구성요소별 증가율을 살펴보면, 치과 진료를 받은 진료인원은 2013~2014년 가장 크게 증가한 이후 5% 미만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진료비는 2013년 25.7%로 가장 크게 증가한 후 2016년까지 20% 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다 2017년부터 증가율이 소폭 둔화하였다. 내원일수는 환자 수 증가율과 비슷한 추이를 보인다[그림 1].



[그림 1] 최근 10년간 치과 진료 구성요소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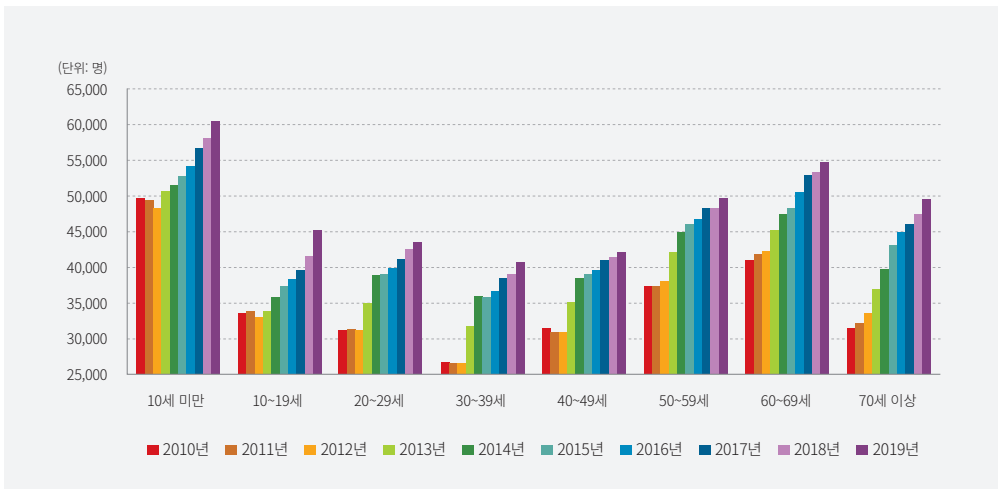
자료: 2010년 1월 ~ 2020년 6월 요양급여비용 치과 명세서 청구자료

진료현황과
진료영향분석

나. 연령대별 건강보험 치과 진료 현황

1) 연령대별 진료인원 변화

연령대별 치과 진료인원을 연도별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으로 표준화하여 살펴보면, 10세 미만 연령대의 경우 2019년 인구 10만 명당 치과 진료인원은 6만 496명으로 전 연령대 중에서 연간 치과 진료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40대는 치석제거가 급여화된 직후인 2013~2014년 치과 진료인원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70세 이상의 노년층의 치과 진료인원은 연평균 6%씩 증가하며 2010년 인구 10만 명당 3만 1,461명에서 2019년 4만 9,561명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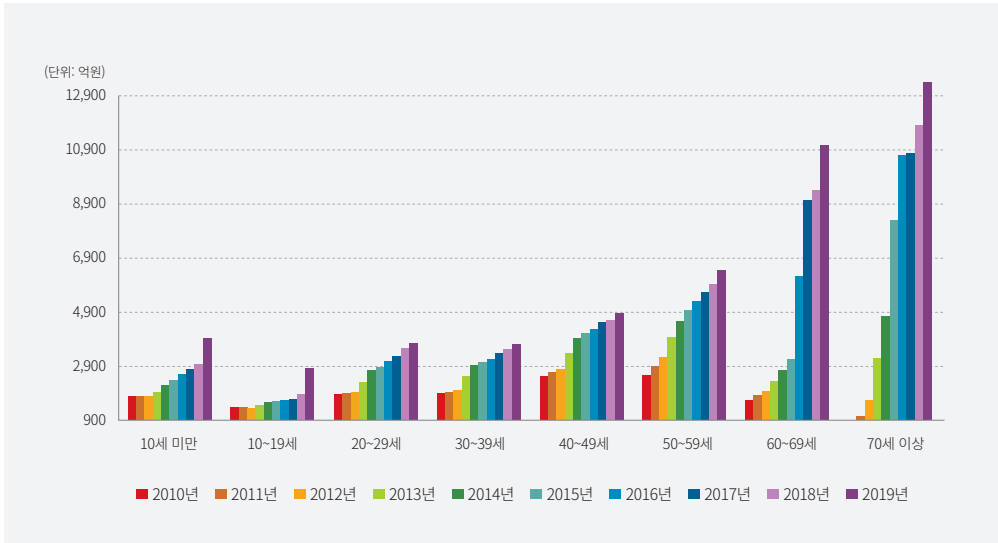


[그림 2] 최근 10년간 연령대별 인구 10만 명당 치과 진료인원 변화

자료 : 2010년 1월 ~ 2020년 6월 요양급여비용 치과 명세서 청구자료

2) 연령대별 진료비 변화

연령대별 건강보험 치과 진료비 변화를 살펴보면, 전 연령층에서 치과 진료비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10세 미만과 10대의 치과 진료비는 2019년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60대의 치과 진료비는 2016~2017년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며, 70세 이상의 치과 진료비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그림 3] 최근 10년간 연령대별 치과 진료비 변화

자료 : 2010년 1월 ~ 2020년 6월 요양급여비용 치과 명세서 청구자료

연령대별로 전년 대비 치과 진료비 증가율을 살펴보면, 10세 미만과 10대의 2019년 치과 진료비는 전년 대비 29.8%, 51.0% 증가하며 최근 10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2019년 1월 소아 충치치료를 위한 광중합형 복합레진의 보험 적용으로 인한 영향으로 분석된다(표 4).

20~50대의 연령층의 치과 진료비는 치주질환 치료를 위한 치석제거가 급여화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연평균 15% 이상씩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60대 치과 진료비는 만 65세 이상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가 급여 적용되는 2016년 전년 대비 치과 진료비가 97.7% 증가하였으며, 만 65세 이상 틀니 본인부담금이 50%에서 30%로 인하된 2017년에는 전년 대비 치과 진료비가 4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0세 이상의 치과 진료비는 노인 틀니·임플란트 급여화 및 대상 연령 확대, 본인부담금 인하 등 보철물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이 단계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50%가 넘는 증가율을 보였다.

연도별로 연령대별 치과 진료비 점유율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40~50대의 중장년층의 치과 진료비 점유율이 각각 17%, 18%로 가장 높았으나, 최근 10년간 노인 보철물 관련 하여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확대되면서 2019년에는 60대와 70세 이상의 치과 진료비 점유율이 각각 22%, 2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4).

건강보험정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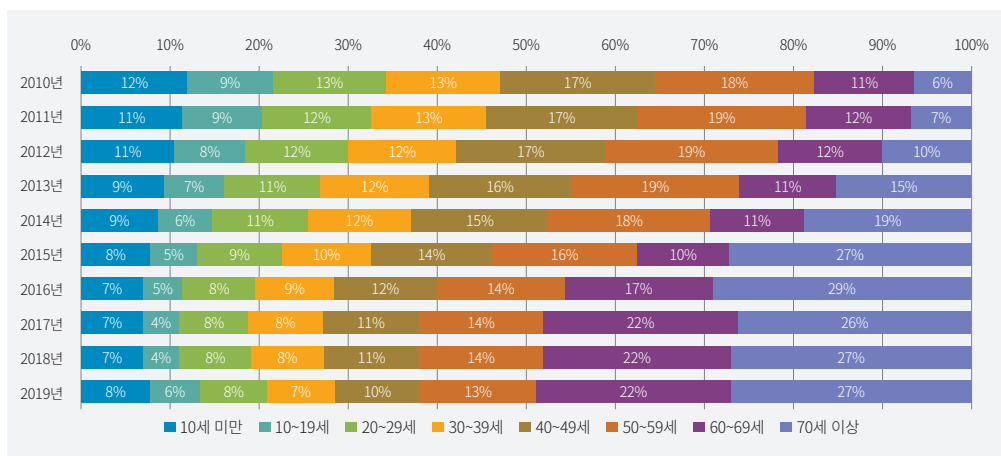
(표 4) 최근 10년간 연령대별 치과 진료비 변화

(단위: 억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14,632	15,500	16,806	21,132	25,522	30,457	37,026	41,181	43,673	49,998
	-	(5.9)	(8.4)	(25.7)	(20.8)	(19.3)	(21.6)	(11.2)	(6.1)	(14.5)
10세 미만	1,766	1,770	1,781	1,965	2,186	2,389	2,614	2,803	3,006	3,904
	-	(0.2)	(0.6)	(10.3)	(11.2)	(9.3)	(9.4)	(7.2)	(7.3)	(29.8)
10~19세	1,385	1,388	1,328	1,463	1,590	1,632	1,646	1,702	1,868	2,820
	-	(0.2)	(-4.3)	(10.1)	(8.7)	(2.6)	(0.9)	(3.4)	(9.7)	(51.0)
20~29세	1,859	1,921	1,936	2,301	2,754	2,881	3,087	3,284	3,546	3,779
	-	(3.3)	(0.8)	(18.8)	(19.7)	(4.6)	(7.1)	(6.4)	(8.0)	(6.6)
30~39세	1,888	1,963	2,043	2,535	2,969	3,040	3,170	3,380	3,505	3,736
	-	(4.0)	(4.1)	(24.1)	(17.1)	(2.4)	(4.3)	(6.6)	(3.7)	(6.6)
40~49세	2,553	2,655	2,804	3,388	3,936	4,133	4,292	4,529	4,609	4,867
	-	(4.0)	(5.6)	(20.8)	(16.2)	(5.0)	(3.9)	(5.5)	(1.8)	(5.6)
50~59세	2,595	2,927	3,254	3,952	4,572	4,962	5,294	5,666	5,937	6,447
	-	(12.8)	(11.2)	(21.5)	(15.7)	(8.5)	(6.7)	(7.0)	(4.8)	(8.6)
60~69세	1,676	1,824	1,980	2,334	2,745	3,145	6,219	9,039	9,407	11,056
	-	(8.8)	(8.5)	(17.9)	(17.6)	(14.6)	(97.7)	(45.3)	(4.1)	(17.5)
70세 이상	911	1,052	1,681	3,193	4,770	8,275	10,702	10,778	11,795	13,391
	-	(15.4)	(59.8)	(90.0)	(49.4)	(73.5)	(29.3)	(0.7)	(9.4)	(13.5)

주: ()는 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2010년 1월 ~ 2020년 6월 요양급여비용 치과 명세서 청구자료



[그림 4] 최근 10년간 연령대별 치과 진료비 점유율

자료: 2010년 1월 ~ 2020년 6월 요양급여비용 치과 명세서 청구자료

다. 상병별 건강보험 초과 진료 현황

1) 상병별 진료인원 변화

치과 진료인원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의 상병 소분류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0년과 2019년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상병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 치아우식,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 순이었다(표 5).

치은염 및 치주질환 진료인원은 2010년 인구 10만 명당 1만 6,200명에서 2019년 3만 2,689명으로 2배 증가하였다. 2013년부터 치주질환 처치에 실시되는 치석제거 항목이 건강보험 급여화되면서 치주질환으로 진료 받는 환자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아우식 진료인원은 2010년 인구 10만 명당 1만 1,031명에서 2019년 1만 2,536명으로 13.6% 증가하였으며,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의 진료인원은 2010년 인구 10만 명당 9,435명에서 2019년 8,192명으로 13.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 비해 치석제거 등을 목적으로 치과를 방문하는 환자가 늘면서 충치 발견이 빨라져 치아우식 진료인원은 소폭 증가하고,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 진료인원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5) 2010년, 2019년 진료인원 상위 10순위 상병

(단위: 명)

순위	2010년			2019년		
	상병명(상병기호)	진료인원	인구 ¹⁾ 10만명당 진료인원	상병명(상병기호)	진료인원	인구 ¹⁾ 10만명당 진료인원
1	치은염 및 치주질환(K05)	7,922,707	16,200	치은염 및 치주질환(K05)	16,799,330	32,689
2	치아우식(K02)	5,394,945	11,031	치아우식(K02)	6,442,247	12,536
3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K04)	4,614,229	9,435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K04)	4,210,224	8,192
4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K00)	1,719,429	3,516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K03)	1,981,557	3,856
5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K03)	1,339,481	2,739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K00)	1,876,288	3,651
6	매물치 및 매복치(K01)	972,666	1,989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K08)	1,512,286	2,943
7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K08)	732,425	1,498	매물치 및 매복치(K01)	1,281,913	2,494
8	치아열굴이상[부정교합포함](K07)	522,964	1,069	기타 장치의 부착 및 조정을 위하여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Z46)	1,222,432	2,379
9	구내염 및 관련 병변(K12)	446,413	913	치아열굴이상[부정교합포함](K07)	860,962	1,675
10	기타 예방적 조치의 필요(Z29)	429,221	878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663,903	1,292

주: 1) 건강보험 적용인구

자료: 2010년 1월 ~ 2020년 6월 요양급여비용 초과 명세서 청구자료

2) 상병별 진료비 변화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의 상병 소분류를 기준으로 치과 진료비를 살펴보면, 2010년 진료비가 가장 높았던 상병은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 치은염 및 치주질환, 치아우식 순으로, 해당 상병의 진료비는 각각 4,782억 원, 4,147억 원, 2,425억 원이었다. 2019년 진료비가 가장 높았던 상병은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치은염 및 치주질환,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 순으로, 해당 상병의 진료비는 각각 1조 5,817억 원, 1조 5,351억 원, 5,979억 원이었다. 최근 10년간 진료비 증가액을 살펴 봤을 때,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 진료비가 2010년 대비 1조 5,563억 원 증가하며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다음으로 치은염 및 치주질환 1조 1,204억 원, 치아우식 3,092억 원 순으로 진료비 증가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표 6) 2010년, 2019년 진료비 상위 10순위 상병

(단위: 억원)

순위	2010년		2019년	
	상병명(상병기호)	진료비	상병명(상병기호)	진료비
1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K04)	4,782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K08)	15,817
2	치은염 및 치주질환(K05)	4,147	치은염 및 치주질환(K05)	15,351
3	치아우식(K02)	2,425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K04)	5,979
4	매물치 및 매복치(K01)	671	치아우식(K02)	5,517
5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K03)	611	매물치 및 매복치(K01)	1,478
6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K08)	254	치아경조직의 기타 질환(K03)	1,455
7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K00)	548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K00)	1,010
8	기타 예방적 조치의 필요(Z29)	375	기타 장치의 부착 및 조정을 위하여 보건서비스와 접하고 있는 사람(Z46)	975
9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S02)	208	기타 예방적 조치의 필요(Z29)	719
10	치아열골이상[부정교합포함](K07)	191	치아열골이상[부정교합포함](K07)	5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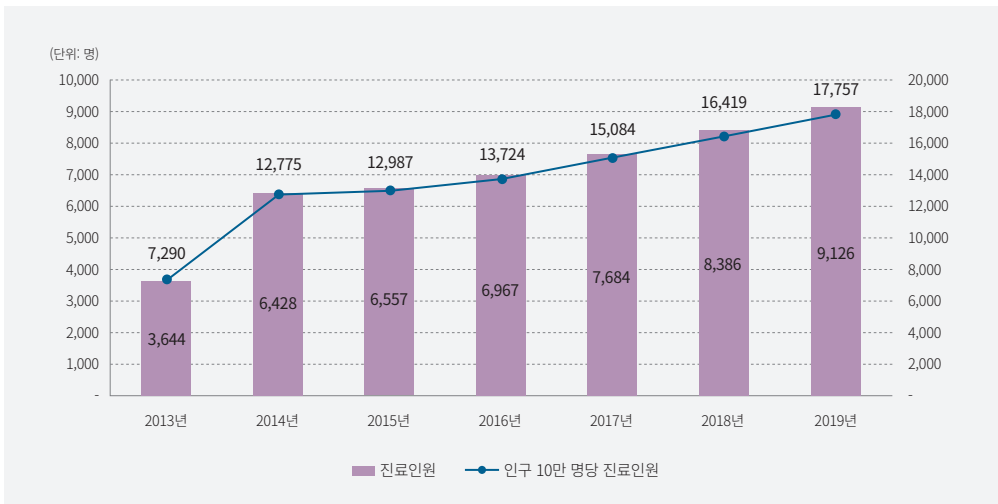
자료: 2010년 1월 ~ 2020년 6월 요양급여비용 치과 명세서 청구자료

라. 주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항목 진료 현황

1) 치석제거 진료 현황

스케일링(scaling)으로 알려진 치석제거는 구강 내의 자연 치아나 인공 치아에 부착된 불순물을 물리적으로 제거하여 충치와 치주질환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질병관리청, 2020). 치석제거 시술은 2013년 7월부터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 1회(7월~6월)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되고 있으며, 2018년 1월부터 대상이 만 19세 이상으로 확대되고 연 1회의 기준이 1월~12월로 변경되었다.

2013년 7월 이후 치석제거의 진료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7월~2019년 12월 건강보험으로 치석제거를 진료 받은 인원은 총 2,325만 8,000명이었으며,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에 치석제거를 받은 진료인원은 364만 4,000명이었고, 2019년에는 912만 6,000명으로 진료 받은 실인원이 150% 증가하였다. 이를 연도별 건강보험 적용인구로 표준화하여 살펴보면, 2013년 인구 10만 명당 치석제거를 받은 진료인원은 7,290명이었으며, 2019년에는 1만 7,757명으로 2013년에 10명 중 0.7명이 치석제거를 받았지만 2019년에는 10명 중 1.7명이 치석제거를 받은 것으로 과거에 비해 치과에서 치석제거를 받은 사람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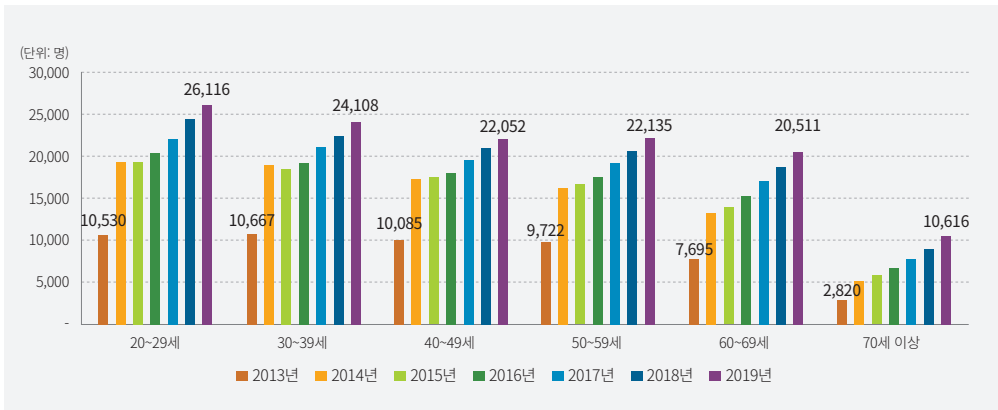
[그림 5] 연도별 인구¹⁾ 10만 명당 치석제거 진료인원

주: 1) 건강보험 적용인구

자료: 2013년 7월 ~ 2020년 6월 요양급여비용 초과 명세서 청구자료

인구 10만 명당 치석제거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 연령층에서 치석제거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9년 20대의 치석제거 진료인원은 인구 10만 명당 2만 6,116명으로 10명 중에 2.6명이 치석제거를 받았으며 2013년 1만 530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30대, 40대, 50대 순으로 치석제거를 많이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치석제거를 받는 환자 비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6].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소



[그림 6] 연령대별 인구 10만 명당 치석제거 진료인원

주: 1) 건강보험 적용인구

자료: 2013년 7월 ~ 2020년 6월 요양급여비용 초과 명세서 청구자료

2013년 7월~2019년 12월까지 23,258천 명의 치석제거 진료 환자들을 대상으로 6년 6개월 동안 환자별로 치석제거술을 몇 회 받았는지 확인한 결과, 1회 시술 받은 인원이 1만 254명(44.1%)으로 가장 많았으며, 1~2회 시술 받은 인원의 비율이 전체의 69.2%를 차지 하였다. 치석제거술은 연 1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데, 6년 6개월 동안 6회 이상 치석제거술을 받은 환자는 744천 명으로 전체 치석제거술 진료인원의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7).

[표 7] 2013년 7월~2019년 12월 환자별 치석제거 횟수

(단위: 천명)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이상	전체
치석제거 누적횟수	10,254	5,830	3,390	1,957	1,084	744	23,258
비율	(44.1%)	(25.1%)	(14.6%)	(8.4%)	(4.7%)	(3.2%)	(100%)

자료: 2013년 7월 ~ 2020년 6월 요양급여비용 초과 명세서 청구자료

2)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진료 현황

노인의 치아건강 증진 및 치과 진료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치과 보철료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이 확대되었다. 2012년부터 레진상 완전틀니, 부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등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단계적으로 확대되었으며, 2014년 7월부터는 치과 임플란트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었다(표 8).

(표 8) 치과 보철료 관련 건강보험 적용

구분	수가코드	명칭	건강보험 적용일자	건강보험 적용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UA101-UA109	진단 및 치료계획(1단계)	2012.7.1.	
	UA111-UA119	인상 채득(2단계)		
	UA121-UA129	약간관계 채득(3단계)		
	UA131-UA139	납의치 시적(4단계)		
	UA141-UA149	의치 장착 및 조정(5단계)		
	UA201-UA209	임시 레진상 완전틀니(1악당)		
부분틀니	UA301-UA309	진단 및 치료계획(1단계)	2013.7.1.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bottom: 5px;">2015년 6월까지 만 75세 이상</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bottom: 5px;">2015년 7월부터 만 70세 이상</div> <div style="text-align: center;">↓</div>
	UA311-UA319	지대치 형성 및 인상채득(2단계)		
	UA321-UA329	금속구조물 시적(3단계)		
	UA331-UA339	약간관계 채득(4단계)		
	UA341-UA349	납의치 시적(5단계)		
	UA351-UA359	의치 장착 및 조정(6단계)		
	UA401-UA409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3치기준)		
UA411-UA419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추가 1치당)			
치과 임플란트	UB111-UB119	진단 및 치료계획(1단계)	2014.7.1.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0px; padding: 5px; width: fit-content;">2016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div>
	UB121-UB129	고정체(본체) 식립술(2단계)		
	UB131-UB139	보철수복(3단계)		
금속상 완전틀니	UA501-UA509	진단 및 치료계획(1단계)	2015.7.1.	
	UA511-UA519	인상 채득(2단계)		
	UA521-UA529	약간관계 채득(3단계)		
	UA531-UA539	납의치 시적(4단계)		
	UA541-UA549	의치 장착 및 조정(5단계)		

치과 보철료 관련 건강보험 적용

건강보험 급여화 이후 2012년~2019년 65세 이상 노인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진료 환자는 총 310만 3,000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치과 임플란트 환자는 177만 1,000명(57.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분틀니 112만 명(36.1%), 금속상 완전틀니 48만 8,000명(15.7%), 레진상 완전틀니 36만 5,000명(11.8%) 순으로 많이 진료 받았다. 2019년 65세 이상 건강보험 노인 적용인구(746만 2,986명)와 비교했을 때, 전체 건강보험 노인 인구의 41.6%가 틀니 또는 치과 임플란트로 1회 이상 진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9).

(표 9) 2012년~2019년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청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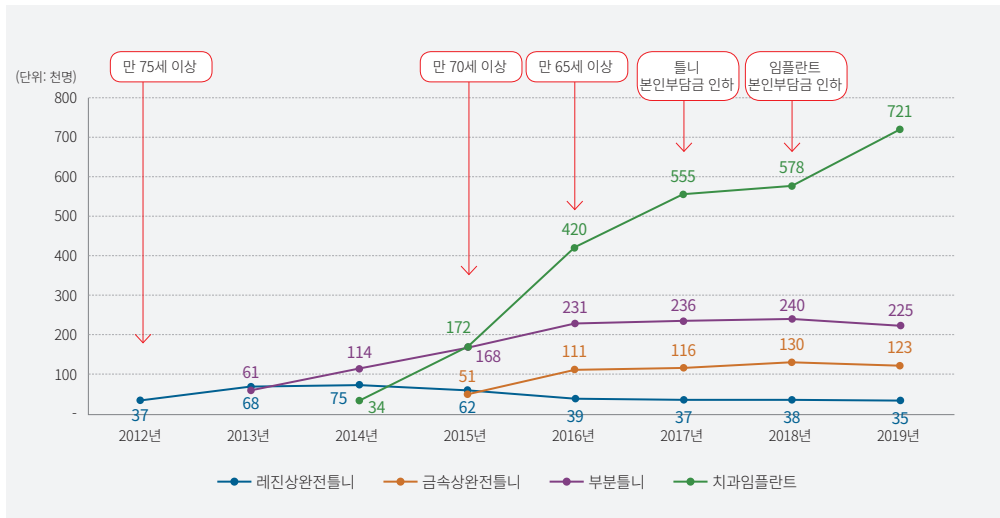
(단위: 천명, 억원, %)

구분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부분틀니	임플란트	전체
총 환자 수	365 (11.8)	488 (15.7)	1,120 (36.1)	1,771 (57.1)	3,103 (100.0)
노인 인구 대비 환자 수 비율	4.9%	6.5%	15.0%	23.7%	41.6%

주: 1) 노인 인구 대비 환자 수 비율 = 총 환자 수 / 2019년 기준 65세 이상 건강보험 노인 적용인구 * 100
 2) ()는 전체 대비 해당 항목 비율

자료: 2012년 7월 ~ 2020년 6월 요양급여비용 치과 명세서 청구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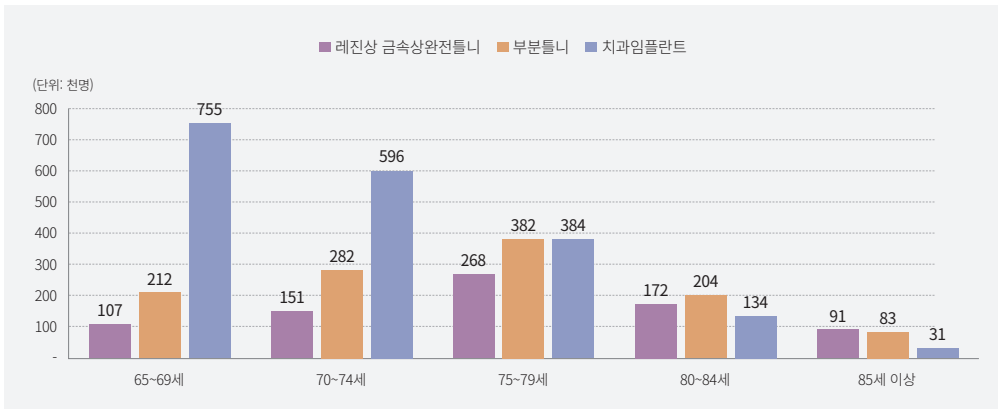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진료인원은 정책 변화가 있는 다음 해에 진료인원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치과 임플란트 진료인원은 2015년~2016년 건강보험 적용 연령이 확대됨에 따라 2017년 진료인원은 2014년 대비 15배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본인부담금 완화로 인한 영향으로 25%의 증가율을 보였다. 틀니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부분틀니와 금속성 완전틀니 진료인원은 2016년까지 증가 추세였으나 2016년 이후 부분틀니는 연평균 23만 명, 금속성 완전틀니는 연평균 12만 명 내외의 진료인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며, 레진상 완전틀니는 2016년 이후 연평균 3만 7,000명 내외의 진료인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그림 7).



[그림 7] 2012~2019년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진료인원

자료: 2012년 7월 ~ 2020년 6월 요양급여비용 치과 명세서 청구자료

5세 연령구간별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치과 임플란트는 65~69세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진료 받았고 틀니는 75~79세 연령층에서 가장 많이 진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노인(65~69세, 70~74세)은 틀니보다 치과 임플란트를 주로 진료 받았으며, 75~79세 연령대를 기점으로 임플란트보다 틀니를 더 많이 시술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8).



[그림 8] 2012~2019년 연령대별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진료인원

자료: 2012년 7월 ~ 2020년 6월 요양급여비용 치과 명세서 청구자료

4. 나가며

이 글에서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 자료를 활용하여 연도별 치과 진료 현황을 연령별, 상병별, 주요 진료항목별로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 10년간 치과 진료를 받은 진료인원과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진료인원과 진료비는 건강보험 정책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화로는 치석제거가 급여화된 직후인 2013~2014년 20~50대 연령층의 치과 진료인원과 진료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노인 치과 보철료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70세 이상의 노년층의 치과 진료인원과 진료비가 매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상병별 치과 진료인원은 치석제거 급여화로 인해 치주질환으로 진료 받는 환자가 과거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치석제거 등을 목적으로 치과를 방문하는 환자가 늘면서 충치 발견이 빨라져 치아우식 진료인원은 소폭 증가하고, 치수 및 근단주위조직의 질환 진료인원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요 진료항목
 치과

치석제거 급여 적용 이후 진료 현황을 살펴본 결과, 치석제거가 급여화된 2013년에는 10명 중 0.7명이 치석제거를 받았지만 2019년에는 10명 중 1.7명이 치석제거를 받은 것으로 과거에 비해 치과에서 치석제거를 받은 사람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연령층에서 인구 대비 치석제거를 받는 환자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치석제거를 받는 환자 비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자별로 치석제거술을 누적하여 몇 회 받았는지 확인한 결과, 6년 6개월 동안 1~2회 시술 받은 인원의 비율이 전체의 69.2%를 차지하였고, 6회 이상 치석제거술을 받은 환자는 전체 치석제거 진료인원의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급여화 이후 2012~2019년 65세 이상 노인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진료 환자는 총 310만 3,000명이었으며, 이 중에서 치과 임플란트 환자는 177만 1,000명(5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분틀니 112만 명(36.1%), 금속상 완전틀니 48만 8,000명(15.7%), 레진상 완전틀니 36만 5,000명(11.8%) 순으로 많이 진료 받았다.

틀니 진료인원은 2016년까지는 큰 폭으로 증가하다 2016년 이후 일정 수준의 진료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플란트 진료인원은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로 전기노인(65~74세)은 틀니보다 주로 임플란트 관련 진료를 받았으며 75~79세 연령대를 기점으로 임플란트보다 틀니를 더 많이 시술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치과 진료 경향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치과 진료 경향은 건강보험 정책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에 태어난 세대)가 노인 세대에 진입함에 따라 치과 진료인원과 진료비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과 진료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국민이 건강한 치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예방적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 올바른 양치습관을 통해 치아가 상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며,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여 구강검진을 받고 치아의 표면에 쌓인 치석을 제거함으로써 치아우식과 치주질환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X

참고문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9년 진료비통계지표. 2020.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암 및 치과분야의 보장성 확대 추진.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09.6.18.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5.2.3.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 <http://health.cdc.go.kr>. (검색일자: 2020.12.7.)